

가와구치시내 관광 루트 지도 전 코스 가이드

가와구치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주물, 정원수, 타워 맨션, 도쿄의 바로 옆, 아라카와 강.....모두 다 정답. 그리고 그 외에도 정답은 무한하게 있습니다. 겹으며, 만지며, 알지 못했던 가와구치를 발견하시길! 조몬(縄文)시대의 패총(貝塚)에서부터 재미있는 스포츠까지, 역사, 꽃, 순화, 개성적인 상징적, 볼 수 있는 공원 등등, 유일한 한 순간, 가와구치의 거리를 걸으며 즐겨보시지 않겠습니까?

1 가와구치역 동구 코스

전체거리 4.2km 소요시간 52분
시내의 상업 중심지·가와구치역 동구 주변을 산책, 역 앞의 페데스트리안 데크는 거리의 경치를 근대적으로 바꿨습니다. 역에서 그리 멀지 않은 장소에는, 예로부터의 절과 신사가 남아있습니다. 도쿠가와 장군이 지나간 '닛코 오나리미치'를 따라서 남은 상가의 정교구조도, 최신설비와 역사 유산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가와구치역 동구

2 가와구치역 서구 코스

전체거리 6.3km 소요시간 80분
아라카와 강을 걸으며, 하천 부지에서의 조망을 만끽합니다. 옛날, 에도의와 선이나 주물 만들기 때 필요한 모래 등, 아라카와 강은 가와구치 발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와구치역 서구에 있었던 국가 연구소는 문화유산으로, 옛날부터 있었던 맥주공장은 상업 시설·미술시설을 갖춘 복합공간이 되었습니다.



아라카와 운동공원

3 모토코·료케 코스

전체거리 5.3km 소요시간 65분
사이타마 고속철도의 개업, 초고층아파트의 증감 등에 의해, 경치가 변화한 모토코·료케지구. 그렇지만 시바카와 강이 흐르는 일대에는 공장이 많아, 제조업의 도시·가와구치의 원래 풍경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발길을 뺀다면 벽돌을 쌓아 만든 서양관과 일본관의 '(구)다카카가 주택' (국가등록문화재)를 볼 수 있습니다.



에루사 타워와 주물공장

4 니사카와구치·아오키초 평화공원 코스

전체거리 6.7km 소요시간 82분
새로운 역 빌딩이 만들어져, 이미지 업이 되어가는 니사카와구치 동구의 역 앞 도로는 지역민들이 녹화활동을 하고 있어 가로수나 화단이 도로를 예쁘게 꾸미고 있습니다. 시민 스포츠의 거점인 아오키초 평화공원, 충실한 설비 또한 말할 것도 없고, 국립경기장의 성화대 데콜라지 등,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즐겁기 있습니다.



아오키초 평화공원

5 시바 코스

전체거리 5.5km 소요시간 69분
거대한 단지나 단독 주택이 늘어서 있는 시바 지구는 1930년대까지 논지대였습니다. 그 후, 도시화가 진행되었으나 도로변에는 고신로의 비석과 오지조상이라고 하는 옛 신앙을 전해주는 건초더미가 남아 있습니다. 볼 만한 곳은 도쿠가와가의 비호를 받은 교황·조토쿠지 절. 넓은 경내는 일순한 공기에 싸여 있습니다.



조토쿠지 절

6 그린센터 코스

전체거리 6.0km 소요시간 76분
도쿄 돔3배 크기의 그린센터는 여러 화초가 심겨져 있고, 놀이기구도 충실. 이 일대는 원래 꽃의 생산이 활발해서 지금도 주변에는 꽃 가게나 원예점이 보입니다. 가까이에는 관동군대이나 씨의 보리사 (조선대대의 위패를 안치하여 명불을 비는 절)·겐초지 절 등이 있어 에도시대 (구) 아이리야쿠 마을의 분위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린센터 내의 대 온실

7 사시마·기조로 코스

전체거리 6.1km 소요시간 77분
논지대의 모습이 남아있는 주택지에는 에도 치수의 흔적이 눈에 띕니다. 광대한 저수지였던 미누마를 간직한 것이 미누마 논. 물을 끌어 들이는 미누마 대용수. 갑옷을 운반하는 미누마 통선수로, 선인의 지혜와 기술에 감탄합니다. 기조로지구는 아는 사람만 아는 병풍과 나무 썩의 산지입니다.



미누마 통선수로

8 도즈카·아야세가와 강 코스

전체거리 6.5km 소요시간 80분
과거의 논과 정원수 밭은 완전히 주택지로 변모. 신촌 주택지인 히가시카와구치에는 슈퍼마켓이나 대형점포가 들어서 있고, 공원이나 학교, 스포츠센터 등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도쿄 호르는 덴우가와 강가의 벚나무 가로수는 그 지방의 빛깔구경 스포츠, 아야세가와 강에서는 유원치 오리나 배로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도즈카 나카타리공원

9 아카야마·안교 코스

전체거리 7.1km 소요시간 86분
안교는 40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정원수의 산지. 현재도 정원수 산업의 중심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연림이 남아있는 고센인 사원과 '돗의 절'·고지 절, 눈병치유로 신앙을 모으는 지리야쿠시호코인 사원 등, 역사적으로 볼만한 곳이 많습니다.



아카야마성 유적

10 안교·미네 코스

전체거리 4.2km 소요시간 51분
안교는 일년 내내 각 시기에 가장 좋은 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희귀종 이치리노는 지역사람들에게 소중한 지켜지면서 서서히 자생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코스 상에도 오랜 정원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광장의 테라스에는 전통행사'안교하라 별 조형 만들기'의 행이, 안교에서는 자연과 전통이 조화롭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안교하라의 별 조형 만들기

11 하토가야 코스

닛코 오나리미치 루트 전체거리 6.1km 소요시간 77분
시바카와 루트 전체거리 5.3km 소요시간 66분
닛코 오나리미치(길)의 주막마을로 변형했던 하토가야는 정겨운 분위기가 느껴지는 지역입니다. 하토가야 코스에서는 볼만한 곳이 없습니다. 에도의 정취가 남아있는 절과 신사가 많은 닛코 오나리미치, 남북으로 흐르는 강변을 따라 걸어가니 시바카와 강 루트의 두 코스 선택.



하토가야 히카와진자 신사



시바카와루트

가와구치시 프로필

사이타마현의 남단에 위치하고, 아라카와 강을 경계로 도쿄도에 인접해 있는 가와구치시. 거리의 현관인 JR가우치역은 페데스트리안 데크로 동구와 서구가 이어지는 볼 곳이 많은 시입니다.
도쿄에 인접해 있다는 유리한 점도 있어 매년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헤세이 23년(2011년) 10월에 '하토가야시와 합병되어, 사이타마현에서는 제 2위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가와구치시에는 중앙에 시바카와 강, 동쪽으로 아야세가와 강, 남쪽으로 아라카와 강이 흐르고, 대지와 지대에 의해 복잡한 지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 북쪽의 대지에는 옛날부터 정원수나 꽃나무 등의 원예재배가 이루어지고, 시의 70%를 차지한 남서부의 저지에서는 주물이나 직물, 낫산대, 된장 등의 양조업이 뿌리내렸습니다. 그것들은 제조도시의 기반이 되어 시의 발전을 지탱해왔습니다. 주물은 에도시대에 번영한 닛코 오나리미치 주변을 발달시켜 전국 유수의 공업도시로서 성장을 계속하여 주물의 도시·가와구치로 자리잡아 왔습니다.
한편, 근년에는 급속도로 베드타운(대도시 주변에 위치한 주택 지구)화가 진행되어 과거 임업이 있던 공장들은 타 지역으로 이전. 공장건물 등을 한 자리에는 고속도로나 쇼핑센터 등이 세워져 전통산업과 새로운 문화가 교차되는 시로 변모되고 있습니다. 가와구치시에서는 지금, 영상산업이라고 불리는 신 산업의 싹을 키우고 있습니다. NHK라디오 방송국 터에 세워진 SKIP시티는 그 거점. SKIP시티 국제D시네마 영화제를 여는 등 디지털 시대를 제작하는 기업이나 크리에이터 등의 육성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SKIP시티에는 우주 왕복선으로 지구에 돌아온 우주 장미가 심겨졌고, 어린이도 즐길 수 있는 과학관에는 고성능의 3개의 천문대. 돌이나 플라네타륨 등이 우주에의 관심을 고조시켜 줍니다.

가와구치시의 액세스

주요역에서 가와구치역까지의 소요시간

- 우에노 역에서 약 17분
- 이케부쿠로 역에서 약 17분
- 오오미야 역에서 약 20분

주요역에서 하토가야역까지의 소요시간

- 우에노 역에서 약 38분
- 이케부쿠로 역에서 약 46분
- 오오미야 역에서 약 46분

가와구치시 경제부 산업진흥과
〒332-8601 가와구치시 아오키 2-1-1
전화 번호 : 048-259-9018 FAX : 048-259-2622
2020.2

전통산업의 도시 가와구치 지역을 지탱한 역사 있는 산업

주물

주물은 가와구치를 대표하는 산업의 하나로서 역사가 깊고, 에도시대에 확립된 지방 고유의 산업입니다. 주물공장은 시의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발전, 수많은 주물제품을 만들어 냈습니다. 대도시인 도쿄와 인접한 좋은 입지조건과 전통기술, 부타받이 끝까지 해내는 정신, 왕성한 연구개발 투지 등에 의해 옛날에는 전국제일의 '제조 도시·가와구치' 이름을 떨쳤습니다. 주물공장은 전설기와 비교하면 줄어들었지만 지금도 가와구치에는 제조의 전통이 숨쉬고 있습니다.

가와구치의 주물이란?

사이타마현의 현관, JR가와구치역의 명판은 시가 자랑하는 본고장 산업인 주물제품. 시내의 전코지 절 뒤에서 조립한 일본 최초의 증기 기관차·전코호기 모델입니다. 옛날 가와구치시는 용선로'규표라'의 굴뚝이 솟아올라 있던 돌림업은 주물의 도시. 영화에도 채택되어 시의 상징으로서 오랫동안 이미지가 남아있지만, 현재 규표라를 볼 수 있는 공장은 수 채, 대신 고속아파트가 늘어서 있습니다.

주물은 치밀한 표면 한 후 다고 빛나고 독특한 질감을 갖고있지만, 그 각각을 기억하면 오묘하게 가루동, 맨홀, 다리의 난간, 노래로 알려진 풍어행용 칠판 등 가까운 곳에서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물이란, 철을 포함한 광석을 1500도를 넘는 고온으로 녹여서 모래나 금속으로 만든 틀에 흘려서 굳힌 제품을 말함. 새빨간 철의 덩어리'탕'은 복잡한 형태의 틀이라도 빨리 틀어가는 것처럼 자유로이 흘러 들어가 모양을 만들어 냅니다. 그 기술은 인류가 불의 이용을 안 원시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토기 만드는 불꽃으로부터 녹아 나온 금속이 패턴 곳에 들어가 굳는 것을 원리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주물 제조에 불가결한 것은 '주형'입니다. 만들 제품과 같은 모양을 해내거나 금속, 합성수지에 틀이 들어설 주형을 모래로 고정시켜 마지마에 모형을 찍어내어 만들어진 패턴 금속에 철을 흘려 넣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든 1500도를 넘는 녹은 금속이 주형물 부수지 않고 형태를 만드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금속의 표면장력이 일하기 때문으로, 게다가 점도가 극히 낮기 때문에 모래에 스며들지 않고 작은 창상이라도 빈틈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가 정밀한 형태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현재, 가와구치시내에서 생산되는 주물의 대부분은 산업기계를 비롯한 자동차용이나 선박용 기관부분의 부품으로 활약하는 것 외에, 경관제나 일용품 등 가까운 장소에서도 채택되어 이용되고 있습니다.

주물 제품은 정밀의 정밀과 기술이 만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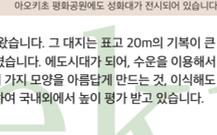
가와구치 주물의 역사

가와구치의 주물산업은 대장장이나 무술사의 이름이 쓰여진 조토쿠지 스님의 '간소 율리'나 '남비 만들기'를 그린 '에도 명소화' 등에서, 늦어도 에도시대에는 시작되었다고 추측됩니다. 당시, 아라카와 강이나 시바카와 강 부근에서 주물업에 적합한 강 모래나 점토가 채취될 수 있었고, 또한 배로 운반하는 것이 편리하고 대도시인 에도에도 인접해 있는 것도 요인으로 생각됩니다.

당초에는 철과 신사의 봉납물이 주역으로, 열마지라야가 바둑이라고 하는 농기구나, 발나바 쇠주전 등 일용품이 제작되었습니다. 19세기에는 에도의 방화용으로 '깃털 받'은 그곳의 제작의뢰에도 응했다고 합니다. 메이지 이후, 기술, 생산량과 함께 가와구치의 주물은 비약적으로 성장하여, 쇼와30년대에는 전국 제일의 주물 생산량을 자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석탄 난로'는 전국 상용시장 점유율의 8할을 점유하여 가와구치의 주물업 세상에 알렸습니다. 또한, 가와구치시의 주물업계가 하나가 되어 직접 만든 국립경기장의 성화대도 대표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주물은 기술자의 숙련된 기술과 우수한 직관력, 과학적인 기술이 더해져 된 첨단과학기술의 조형물입니다. 다른 가공방법과는 달라서 접착공정을 생략한 일체성형이 가능하므로 비형의 절단이나 제품의 소형화도 가능합니다. 디자인도 매우 아름답습니다.

주물제품의 용도가 더욱 넓은 것은 공업용 제품입니다. 날 수직이 없고, 진동이나 소음을 흡수하는 등의 이점이 있어 자동차 엔진부품이나 원자로 터빈, 파워 서플 등, 이 외 원동이나 문짝, 가루동, 미술품 등 생활 속에서도 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법고 열전도율이 높고, 무독성, 비자성(非磁性),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주물제품도 계속 생겨서 스포츠 기구나 조리용품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의 개발·기술의 진전은 주물업에 관계되는 가와구치의 장인 정신은 지금도 여전히 견제합니다.



아오키초 평화공원에 성화대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오나리미치

오나리미치 길(닛코 오나리미치)은, 에도시대에 중군의 닛코 신사 참배를 위해서 정비된 가도로서, 현재의 가와구치시내에서는 국도 122호선과 원도 105호선의 루트로 해당합니다. 가와구치와 하토가야는, 닛코 오나리미치의 주막으로 선택되어 사람들이 왕래하는 가도의 주막 마을-상업 마을로서 번영해 왔습니다. 또 2개의 마을은, 에도를 대상으로 정원수나 낫산대, 직물이라고 하는 전통 산업의 공급에서도 서로 도와주었습니다. 가와구치와 하토가야는 지금 이상으로 일체가 되는 마을 조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닛코 오나리미치 길은 두 개의 숙소

닛코 오나리미치 길은, 혼고 오이와케로부터 이와부치, 가와구치, 하토가야, 오다, 이와츠키의 5개 마을을 거쳐 닛코 오이와케까지의 12리 30정(약 48 km)에 이르는 닛코 가도의 길입니다. 이 가도는, 토키가와 막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기일인 음력 4월 17일에 닛코에서 개최되는 대와 신사의 시모에 행렬하는 닛코 신사 참배를 위해서 이용되었습니다. 닛코 신사 참배는 겐노 3년(1677)부터 에도막부의 덴노 14년(1843)년까지 총 17회 실시되었다고 합니다.

에도시대 가와구치는 이와부치와 함께 아라카와의 인도를 담당하는 주막 마을로서 번창. 주막장의 정예숙사나 우편 등의 우체국업무 하는 도매상점도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닛코 신사참배에 관해서는 이이카로는 8대 정군인 오시무네와 10대 정군인 이케하루가 닛코 신사참배 때 가와구치의 사쿠조지 절에서 정삼시 정삼시를 먹기 위해 잠시 쉬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외, 에도시대 후기의 명소 고지 가이드 '유래지키키'에는 주막 서쪽의 뒷골짜기 방향으로 '기마야'라고 불리우는 수십개의 주물가게가 있었다고 쓰여져 있어 가와구치와 산업의 마을로서도 번창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하토가야는 주막의 본진이 있는 나카미치를 중심으로, 구물상를 비롯해 비로나 염색의 흡수구 등이 있던 곳. 가와구치와 하토가야는 가도가 길어져 있어, 주막의 마을로서 알려져 있었습니다. 에도시대의 중순에 시작되었다고 하는 '산파미치'에는, 주변으로부터 많은 사람이 오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후에도 하토가야는, 주변지역의 물자 집산지로서 발전해, 상업도시로서 이름을 떨쳤습니다.

가와구치와 하토가야는 닛코 오나리미치의 주막으로서 함께 번영하고, 안교 정원수 화간 등의 전통 산업의 배후부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서, 예로부터 상업 문화의 교류가 왕성했습니다. 헤세이 23년 10월(2011년)에 가와구치로 합병된 두 지역은, 지금 이상으로 깊은 관계를 쌓아 올릴 거라 되었습니다.



가와구치주물 본진의 문



메이지35년(1902년) 하토가야주물소 주숙

상점가

가와구치시는, 주물업 중심지로 한 산업도시로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공장의 전파나 배후 도시가 되었고, 철거한 곳에는 대형점포들이 진출하여 슈퍼마켓 등으로 다사 태어났고, 주말에는 어느 곳도 붐비고 있습니다. 시내의 상점가는 60여곳 각각이 개성을 발휘한 상점가 만들기를 전사하고 있어, 현재 재와의 대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열매를 맺어, 사이타마현에서 상점가는 물론 상점가의 경쟁을 막기 위해 잠시 쉬었다는 상점가도 많이 있습니다. '검목 따'는 상점가 주위의 사업을 유지하기 지속시키는 건강한 상점가가 조건입니다.

건강한 상점가는 시내에 몇 개 있어, 니사카와구치역 주변에서는 지역 대로를 예쁜 곳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가와구치역 동쪽 출구 부근 일대에서는, 칠석축제 전통행사로서 하는 것 외에, 상점가 소유의 갤러리를 마련하는 등의 대치가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또 하토가야역에서는, 프리마켓 등 주민참여형 이벤트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겨울에는 일루미네이션을 장식하고 고조시키는 상점가도 증가하고 있어, 스타벅스의 커뮤니케이션 센터는 생기는 즐거움 이벤트로서 정착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상점가는, 대형점포에 없는 수제품을 살리고, 소치품을 두근거리게 하는 매력적인 상점가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오랜 전통을 가진 가게가 많은 상점가의 활력적인 7월의 전통행사입니다.



이벤트도 상점가와 지역 주민의 일체감이 높아집니다.

정원수

정원수는 대지의 풍토에 지켜지면서 시내 북동부의 안교지역을 중심으로 번영해 왔습니다. 그 대지는 표고 20m의 기록이 큰 홍적대지. 관동 물층의 저토를 활용해 견뎌나 접붙이기, 실내 저장 등의 기술이 생겼습니다. 에도시대가 되어, 수운을 이용해서 그 기술은 에도 거리에 옮겨져 안교의 이름이 퍼졌습니다. 현재도 소나무나 삼목 등의 가지 모양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 이식해도 뿌리를 말리지 않게 뿌리 잘라 주는 것 등, 오랜기간 동안 길러온 전통기술은 안교라고 하여 국내외에서 높이 평가 받고 있습니다.

왜 가와구치의 정원수가 유명한가?

가와구치시의 정원수 생산지는 안교지역을 중심으로 가미네, 도즈카, 신고 등의 시내 북동부 지역. 이곳들은 시내에서 더욱 높은 대지가 있어 표층 밑에는 화산재의 퇴적층이다. 세월이 흘러 침식되어 경사지나 저지 등 기록이 지형이 만들어 각각의 지형에 알맞은 많은 종류의 초목이 되었습니다. 그 대지는 배수가 잘되고 햇빛이나 침투의 기술이 발달하고, 양치바는 사면에는 온실은 이용한 꽃이나 용의 수경재배기술도 생겼습니다. 또한 입지조건으로 보면 가와구치는 일본의 대략 중앙에 있어 온난지역에서 한랭지역까지 광범위하게 생산하는 식물의 재배도 가능하게 되어, 대도시로 도매에 인접하는 지리적 조건도 좋아 정원수산업으로서 발전. 머지않아 전국 각지로 침투해 갈 것입니다.

가와구치의 정원수의 시초는 에도시대로 추측되며, 아카미야에 관용을 만든 관동군대·이나 씨가 개간을 권장한 한편, 정원수가 꽃의 재배를 장려했다고 합니다. 또한 큰 불로 소실한 에도의 부흥을 위해 안교의 정원수를 보내는 계기를 만든 요시다노조나, 비후나기나 등의 가지를 에도에 팔았다는 사이사시타로에도 등 오늘날의 정원수 산업에 기초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원수야경의 아름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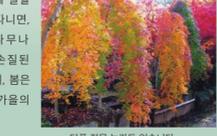
아름답게 손질한 안교지역의 정원수 밭

숨쉬는 기술

안교의 정원수는 현대에도 높게 평가되고 있고, 10년마다 개최되는 네덜란드 국제정원박람회 1982년부터 매년 출전하여 안교의 정원수 기술을 구사한 일본정원들은 연속으로 타이틀을 수상. 이것을 기회로 'ANGYO,브랜드는 해외에서도 높게 평가 받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전승되어 온 안교의 정원수 기술은, 그 대부분이 안교에서 개발되어, 정원수 안교의 브랜드로 전국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 '뿌리 써기'는, 수목을 이식할 때의 기술. 캐논 뿌리에서 흙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싹내주머니로 뿌리를 감싸고, 밧줄로 묶습니다. 전에는 밧줄이 사용되었고, 흙에 매우먼 그대로 퇴비가 되었다는 뛰어난 것이었습니다. 줄 조형의 아름다움도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구부림'은, 수목을 구부러서 멋진 모양을 만드는 기법으로, 완성까지는 30년이 걸린다고 하니, 높은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꽃잎에 사용하는 '나뭇가지와 줄기'에는 수송중의 분묘의 낙하를 막는 '시리' '가지끼리' 라고 하는 기술 등도 있어, 모두 가와구치의 풍토에 맞게 육성되어, 현대에 계승되고 있습니다.

가와구치에서는, 에도 때보다 시내북동부를 중심으로 식목이나 화해 재배가 행하여지고 있어, 식목재는 농민기가 없고, 농작업은 시시때때로 바뀌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안교지역의 농지의 정원수 점유율이 현재는 90% 에 달할 만큼 퍼졌습니다. 지금도 이 곳을 돌아다니면, 조원업 등의 간판이 점재하고, 소나무나 들벥나무, 노송나무 등이 아름답게 손질된 정원수나, 감성화의 분재, 꽃 등이 넘쳐, 봄은 새색이 부드러운 초록으로 시작되고, 가을의 단풍도 완충 더 아름답게 빛납니다.



단풍 전후의 농도가 있습니다

연간행사

1월	첫참배 (시내의 사원이나 신사) 다케슈 가와구치 철복신승상 신승교례회·시내의 초회 지치회 각종단체가 모여 신승을 축하한다 (리리야)	
2월	일본·공 뿌리기 (그린 센터를 비롯해, 시내의 사원이나 신사) 월의 첫 오일...주물 공장 등에서 이나리님을 모신다 (시내 각 공장) 꽃 문화전 (리리야, 가와구치 녹화 센터)	
3월	월의 첫 오일 북 콩쿠르 (리리야) 봄의 정원수 대 경매 빛꽃축제 (문화방송 가와구치 방송소 이의 시내 각 장소)	
4월	봄의 안교 꽃 정원수 축제·이치리노 축제 (가와구치 녹화 센터, 고향의 숲 이외) 에도부쿠로의 사자춤 (에도부쿠로키와진자 신사)	
5월	스프링 페어 (그린 센터) 미도리의 지구촌 in 안교 (안교 스포츠 센터) 시바카와 고이노보리 축제 (빛꽃 다리 주변) 안교하라의 별 조형 만들기 (안교하라) 봄의 원예 축제 (규표라 광장)	
6월	안교도하치의 사자춤 (안교도하치)	
7월	칠석축제 (후지노시 상점가) 여름축제 (하토가야 히카와진자 신사) 국제D시네마 영화제 (SKIP시티)	
8월	다타라축제	
9월	료케의 반주음악 (하야시) 과, 가가라 (료케 이나리진자 신사, 신주진자 신사) 투 데이 마치 (도즈카 나카타리공원 이외)	
10월	그린 페스티벌 (그린 센터) 가을의 안교 꽃 정원수 축제 (가와구치 녹화 센터 이외) 에도부쿠로의 사자춤 (에도부쿠로 히카와진자 신사) 가와구치시 사자춤 페어 (SKIP시티)	
11월	초록과 대지의 풍년축제 (식물재 센터·가와구치 녹화 센터) 아라카와·만남축제 (우키바 골프장)	
12월	가와구치 마라톤 대회 (이오쿠노 공원종합 운동장) 오카메시 (행운을 바는 물건을 파는 시장) (가와구치진자 신사) 오카메시 (행운을 바는 물건을 파는 시장) (이초카 히카와진자 신사) 오카메시 (행운을 바는 물건을 파는 시장) (하토가야 히카와진자 신사) 제야의 춤 (시내의 사원이나 신사)	

※각종 사업 사항은 사정에 의해, 변경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